

여성의 시대

esalia



1세대 총아학우회

순서

기획특집...sisterhood

지금 알고 있는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동아리 생활 2년차

드라마 속 끝없는 악녀들...여자들 관계는 모두 라/이/벌?

애인 VS 친구. 하나만 선택하라구?

너무나도 생소한 'sisterhood'

세상 똑바로 보기

보라 꽃다운 두 여중생의 참혹한 주검을....

씨엠씨 노동자들의 연실보고...

여자는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

얼경 페스티벌을 다녀와서....

'밤.꽃.양'을 아세요?

세상을 적시는 사랑?



지금 알고 있는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by 짝별

내가 왔다고 환호하며 박수치는 남자선배들을 보며
좋아하고 있던 순간에
나에게 조용히 말 걸어오는
여자선배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여자 새내기가 오면 더욱 좋아하는 그들의 환호의 의미...
나를 하나의 새내기... 후배가 아닌
여자후배로 여겨서 였다는 걸....
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꽃이 되는걸 즐기기보다는
내 동기들과 여자선배들과 좋은시간
대학생활을 알아가고 사회를 알아가는 진정한 대화를 나눴더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생전 처음해보는 스타를 배우러 다니고
당구를 배우러 다니는 그 순간에
카페에서 수다떨며 자신이 진정 즐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는 그녀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밤새서 술 마시며 그들과 어울리고
넌 여자같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며
다음날 아침 어젯밤 일에 대해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던 이들이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그 누군가가 처음부터 말해주었더라면 ..

알고 있었더라면

더 의미있는 새내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네 주변에는 더 많은 여자친구, 여선배들이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을까

어떤 집단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다른 여성과 ...

못 여성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 안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 즐거울 수 있는 사람과 나의 문화를 만들어갔더라면....



나는 동아리 생활 2년차....

by. 김이

작년에 내가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 동기들 10명중 3명만이 여자였다. 하지만 우리 셋은 그다지 친해지지 못했다. 동방에 들어가고 서로 대화하면서 친해지기보다는 남자 선배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었다. 여자 선배들도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원저 다가가기가 힘들었고, 농담 한마디를 해도 좀 부담스러웠다. 남자선배들은 "오빠오빠~"(—_—)하면서 같이 다니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친해지기가 참 쉬웠다.

"여자선배들은 여자후배를 싫어한다."는 말도 있었다. 자기들과 놀던 남자동기들이 여자후배한테만 잘해줘서 질투를 만드나? (참내~) 암튼 말도 안되는 그런 유언비어 때문이었는지 난 동아리 생활 1년이 지나서야 여자선배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도, 학생회 활동에서도 회의를 자주하게 된다. 집부회의나 기획회의나~~~ 그런 회의자리에 들어가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다 놀란 적이 있다. 여자가 나 혼자였다. 여학우가 나 혼자이다 보면 회의를 진행하면서...어느새 남성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논리적인 말,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말을 하기 위해 무진 예를 써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여학우 모임의 필요성을 세심스레 다시 느끼게 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적이 아니고, 나의 심리상태를 이해시키기 위해 굳이 논리적인 단어를 선택하려 애쓰지 않아도 "따 ~~ 알아알아! 맞아맞아~"라고 외치는 그녀들을 볼 수 있다. 경험의 비슷함과 타인의 경험을 받아 안으려는 그녀들의 특성으로 이는 실현되는 것이다. 여학우 모임은 험난한 과정 속에 이루어지지만 한편 광란의 수다를 이루고 나면 세로세로 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지매애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숭실 내에 지매애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여성모임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해본다. 개별 여성모임은 그녀들의 작은 모임이나 허니로 숭실 내의 여성주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간에는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존재한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흘러지지 않는 존중되는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나요...

사소한 것으로 지부되는 것이 아닌 나홀로 외로이 느끼는 것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던 느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당장... 과내 .. 동아리내

여학우들에게 전화를 돌리자

'우리 여학우모임 하자!!'

우우



드라마 속 끝없는 악녀들... 여자들 관계는 모두 라/이/벌?

by. 오서리스

「KBS2」려빙유, 「MBC」내 사랑 팔쥐, 「SBS」라이어벨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이다. 나 또한 호기심으로 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난 이 세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짜증나는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 드라마에 똑같이 등장하는 순진한 성격의 여배우,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 순진한 여배우를 못살게 구는 성격의 여배우 그리고 원상 속이나 있을 법한 재벌 2세들이 있다. 여기에 뻔한 삼각관계까지...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똑같다 보니, 드라마 기본 구도도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의 문제가 있다. 왜 여주인공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건 항상 그녀들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일까. 여자들끼리의 우정은 시기와 질투에 가려질 만큼 아찔한 것인가... 영화 「친구」에서는 남자들의 의리 있는 우정을 그려며, 남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남성들의 우정은 매우 의리 있고, 그 의리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는 행동들을 보여준다. 우리 여자들의 우정은 이런 남자들의 우정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악녀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녀의 필수조건은 시기와 질투이다. 그리고 악녀는 현대물뿐이 아니라 시대극에서도 등장한다. 특히, 일부다처제가 성행했던 시대에 남편의 정부와 첩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악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만약 일처다부제였다면 어땠을까... 분명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자들끼리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언척들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나는 일부다처제였던 시대의 여인을 시기와 질투로 그려내고 해석하는데서 지금의 악녀가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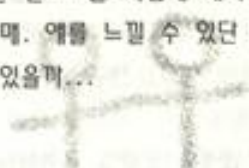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고 보았던 동화들 속에서조차 시기와 질투가 등장한다. 「신데렐라」 「공주팔쥐」 「백설공주」... 이 동화들은 주로 어머니와 언니 동생에게서 핍박받는 주인공들을 내세운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할 동화들이 사실은 더 나쁜 모습들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진 엄마가 아니고 친동생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동화들이 말이다. 우린 어릴 적부터 여자의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표현

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적응하여 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악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한 여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까지보다는 질난 남편과 결혼에서 '누구의 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빠르다. (물론 요즘은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하지만 소수의 성공과 절대다수의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는 주부들을 생각해 보자...) 남편에 의해 얻어지는 신분상승과 외모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적 풍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시기와 질투로 쌓인 악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MBC」내 멋대로 예리를 본 적이 있나요?

여자들끼리 나누는 자매애를 만날 시기와 질투로 가려버리는 드라마들 속에서 「MBC」내 멋대로 예리는 공효진과 이나영의 따스한 자매애를 보여주는 유일한 드라마인 것 같다. 양동근을 좋아하는 공효진과 이나영은 다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평범한 삼각관계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삼각관계를 이룬다. 웅덩이 연적이 되어야 할 그들은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지만 속마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준다. 우린 이런 자. 매. 애를 느낄 수 있던 말이다. 어!... 언젠가면 짜증 나는 드라마들만 볼 수 있을까...



예인 VS 친구. 하나만 선택하라구?

by. 미나리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다는 몇 년 전에 한 광고를 말하려는게 아니다.
왜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는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 생각하기로 하자. 일단, 나의 이야기 하나.

몇 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를 만나게 된건.. 어쨌든 상당한 우연이
여러 가지가 겹친 결과였지. 좋았었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심심할 때 전
화할 곳이 있다는 것이 좋고, 돈금없이 생각할 사람이 있어 좋고, 일기장에 쓸 게
리 하나씩 늘어나는게 좋았어.

그리고, 주고 싶어져더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고, 힘이 되어주
고 싶었고, 무엇보다 만나서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어지는 거야...

아아. 만나서 도움되는 사람이라, 힘이 되는 사람이라...

어려게,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 시간 말이다.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비워두어야 했던 거지. 누구에게나 하루는 스몰 네 시간이고,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시간들 중
에 어느만큼을 떼내써야 했다는 말이야.

그럼 무엇을 포기했을까. 일단 그 녀에게 공부에 있어서는 지기 싫었으니 공부는
해야했고, 학교 안가고 만날 수는 없고, 결국엔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쪼개했
지.

‘미안해. 오늘 나 그 아이 만나기로 했어.’

그러던 어느날 저 멀리서 폭지가 한 장 날라 오더라. 나 너한테 서운하다. 전에는
폭지도 잘 보내고 전화 걸어 수다도 잘 떨더니만 요즘에는 별로 그러지도 않으면
서 어쩌다 전화하고 어쩌다 폭지 보내면 하는 얘기가 모두 그 녀 이야기나.. 하는
그런 폭지.

아.. 나도 서운하더라. 내 친구면 내 예인도 예뻐해 줄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닌
가봐.

이게 내 이야기다. 반말해서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 그래도 이런 얘기는 수다떨
듯 하는게 좋지 않은가.

뭐.. 나처럼 구체적으로 폭지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었거나 하는 언니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이 떠올랐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나도 내 친구
엔 생긴 다음에 서운한 적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게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친구들과의 수다 안에서 알았던 말이다. 결국, 나. 그 원인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뭘까. 도대체. 왜 이런일이 생기는 거지?? 남자들은 자. 우리 친구 아어가..하는
이상한 말을 몇진 친구의 모습이라고 떠올려대던데, 그럼 우린 그러면 안되는 건
가?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엄마를 봤다. 음. 어!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들 그러지 않던가. 내 남편을 위해, 남편을 사랑해서 남은 자식들 때
문에. 포기한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로 진출하는 언니들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살림의
뭇이 우리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들 포기해야 하는 것들 많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온연중에 배워오면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솔직히 그
렇잖아.

연애하는데도 이렇게 거부장적인 것들 때문에 폭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 조금은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그럼 이따 내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볼까. 쓰기 시작할 땐 생각 없이 썼던 말이지
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만나서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거. 뭐,
이 말에 그렇게 잘못된 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인데 뭘. 나도 누군
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언가 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럼, 난 뭐지? 나도
조금은 포기하고 있었던 걸까? 남자들은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보다 먼
저 만나던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난 왜 친구들을 포기해 왔지? 절대 무언
가 주고 싶어서는 아닐텐데.. 그래. 나도 조금은 따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지도 몰라.

이 이야기에 어떤 결론을 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연애하면서 손앓았다거나 아니
면 친구들에게 서운했다거나 그런 얘길 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조금만 평등해지자. 연애도 평등하게 하자. 나도 내 예인만큼 친구 사랑
할 줄 안단 말야. 일단, 내가 먼저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떨쳐야
겠다. 아무것도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조건없는 사랑을 베풀다가 자신의
인생을 잃을 수밖에 없던 우리 엄마들처럼 친구도 잃고, 이름도 잃고, 그런 연습
을 아지는 말자.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랑할래. 내 친구 예인 생겼다고 바쁘다고 멀리 안 할래. 언

제든 어떤 얘기도 수다 떨며 웃을 수 있는 재산이잖아. 우리 친구아이기~ 이런 말하지 않아도, 시간을 쪼개더라도 말이야. 시간은 양이 중요하게 아니잖아. 내 친구에게 질적인 사랑을 베풀자구.

자. 전화 한 통 해야되겠다. 내가 어제 만난 남자아이기. 내 일기장어랑 수다 떠는 것 보단 친구가 더 좋을 것 같아...



너무나도 생소한 'sisterhood'

by 짝별

episodel.

'저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를 들어온지 며칠되지 않은 어느 새내기이 이 깜짝하고 당돌한 한마디에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지금 옆에 있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나는 뭐지...) 아니 잠깐. 당황해하면 안되지. 다시 나.. 당황하는 모습을 수습하고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성적 지향으로서 이성애를 강하게 원하나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여성+여성의 관계 맺기에 성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 라며... 혼란스러워하며... 그 아이의 다음말이 이어지기 전인 그 짧은 시간에 머리까지 합금화의 퍼즐을 개워 맞추고 있었다.

'그냥.. 어 여자애들은 소심하고 잘배지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통해...'

나의 기대와는 달리 벌어지는 그녀의 생각이... 사회에서 강요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들을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라는 것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내 모습...
답답함과 안타까움...

episode2.

'몇시간째 전화통 붙잡고 있는거야 하버튼 여자들 수다는.....'
'여자들끼리 모이면 수다밖에 더 없어?'

몇시간이고.. 커피숍이든 어디든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수다를 떠어본 사람은 안다.
수다가 얼마나 위대한 지...

episode3.

'당신은 집에 있어'

우리 아버지가 친목계 가시면서 우리엄마에게 내던진 단호한 한마디였다.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친목계는 남편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동안 부인들끼리도 모임을 한다. (물론 부인들의 모임이 순탄하게 성사된 건 아니었다... 그 방해공작들~~옥..)

그런데 아버지는 모임에 갈 때 어머니와 절대 함께가지 않으려 한다. 모임에 몇번 나간 어머니가 유쾌 풍쾌 상쾌 하다고 하시자 아버지는 여편내들이 만나서 수다..... :: 밖에 더떠나고 하면서 모임에 못가게 하신다. 아마도 아버지는 두려우신게지... 어머니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수다떠는것... 그 수다한에서 어머니의 대우가 부당하다는걸 느끼는게 되는게..

'아주머니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게 유일한 낙이었던 우리 엄마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안그럼...) 오늘도 모임에 가지 못하고 tv를 켜다

우리가 자매애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의 왕홀함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의 선천적인 특성이 아닐 것이다. 현재 소위 여성의 성격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을 뽑아내고 소위 남성의 성격이라 일컬어지는 것들 (화끈하고 화통하고 빠지지 않는 성격.. 맘 좋은..) 이 우상시 되며 여성에게 명예남성이 되기를 끊임없이 강요한다. 여자는 예쁜여자를 싫어한다 라는 황당한 말들을 유포시킨다.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매애를 느끼지 못하고 자라도록 길들여진다. 이제 소외 되어 왔던 자매애를 느껴보자... 이제... 자매의 손을 잡자..

내 이름은 보라다. 보라색.. 좋지. 그것 때문에(보라색을 엄청 좋아한다.) 내 이름이 '보라'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아니었다.

'보라'. See It! 아는 그 보라다.

외면하지 말란 얘기다.

고개 돌리지도 말고, 하고 싶은말 하며 살지는 거다.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어.. 그러겠지만, 다들 다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거지.. 그렇게들 말하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말 많았잖아. 고개돌리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진짜로 보자. 그 말이야.

그러하여 내 이름이 보라가 됐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도대체 뭘 보자는 이야기나?

지금까지 살면서 대접 못 받았던 일들, 그래도 어쩔 어닌데..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따지고 싶은데 말 못한 일들. 그런 것들 피하지 말고 직선적으로 보자는 그 말이지.

그럼, 내가 직선적으로 보기로 한 이야기들 몇가지 예 볼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들을까 싶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그런 글을 쓰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맞아. 나 피해의식 있어. 그런데 그게 나만이 가진 피해의식은 아닌것 같아.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지.

난 동생이 둘 있어. 하나는 여동생, 하나는 남동생.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할 때 할머니한테 약속을 받은게 있었다는데, 그게 무엇이고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둘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는 것이었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죽어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어. 집안에서 가장 큰 아이였으니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예쁜 자식이었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내 바로 밑의 동생이 여자라는것.

우리 할머니가 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서 대자로 뻗어서 울어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다른 이유는 어나. 딸이기 때문이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럼 남동생은 둘 밖에 안 낳는다더니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태어나건.. 지금 내 동생에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엄마는 자신이 없어

내 동생을 지우려고 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눈치를 채시고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게 하신거지. 왜냐면, 이번엔 아들 낳을 거니까. 그래서 내 동생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어. 그리고 아들이었지. 집안에 삼대 독자. 둘도 없는 우리 아들. 내 남동생이 밍디는게 아니야. 나에겐 둘도 없이 예쁜 동생이지. 그런데 말이야. 왜 내 여동생은 죽목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할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따져보지만, 우리 할머니도 어쩔 수 없니까.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차라셨을테니..

어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 어쨌든 내 옆에서 일어났다는게 참 기분나쁘고 속상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어. 나 흡연자.

담배를 왜 피우느냐구 묻는다면 달리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끊지 못해 피우고 있어.

어느 날 전철역을 빠져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약속한 친구가 아직 오질 않았거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욕을욕을 하면서 지나가는거야.

다 큰 처녀가 길 가면서 담배를 피운다구.

왜? 안되는거야?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야? 이런 일 있지? 나만 겪었던 일 아니지?

또 있지. 몇달 된 이야기야.

선배들과 술을 마시게 됐어. 그리고 한 남자 선배의 술 잔이 비었지. 그런데 아무도 술을 따라주지 않고 있었어. 그러다 내 옆에 있는 친구(그는 남자.)가 술을 따르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러는거야. 술 마실때 고기랑 여자가 없으면 술맛이 안난다구. 니가 한번 따라봐라. 이러는거야. 거기서 그랬어. 술 맛 안나면 나가서 혼자 마시라고.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고.

분위기는 싸~~~ 해졌지만 난 할말을 한 것 뿐야. 기분이 나빴다구.

머 이런 거야. 내가 직선적으로 보자는 것. 별 일 아니지만, 속상했던 것들. 여자 곁을같이 그게 뭐냐, 여자 목소리가 그게 뭐냐. 그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거냐. 이런 말들에 억울한 적 있었잖아.

나만이 그런거 아니지? 다들 한번쯤 예 본 생각들이지?

그래. 별 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었어.



이거 나야..

그냥 알리고 싶었어. 그리고 어떤 생각한 적 있는데 어디까지 말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과 같이 수다떨어보고 싶어서.. 언니야들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페미니스트인가봐.

페미니스트 별 거 아니야.

다들 페미니스트 어떤 뭘까 이리씩 물어보고 있는데

정말 별 거 아니야.

이렇게 화났던 것, 피웠던 것, 어떤 것들에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 주장하면

그게 페미니스트인거지.

페미니스트라는 말에 대한 정의는 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그치만..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보자. 응??

내가 기다리잖아~



세상 폭바로 보기
by. 보라

꽃다운 누이들의 죽음...

보라 꽃다운 두 여중생의 참혹한 주검을.... by작별

지난 6월의 두 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는 사건의 참혹함 안타까움.. 투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포스터를 보는 나는, 집회현장에서의 나는 불편함과 찝찝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 여중생이지? 그리고 꽃다운 이라는 수식어는 뭐지?

노동권/여성노동권 대학생 실업률/ 여대생 실업률

노동권과 실업률을 이야기할 때 '여성의 노동권' '여대생 실업률'을 따로 발언시키고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 안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안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더 낮기 때문에 그 현실들을 전변시켜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주한미군 주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막무가내식의 폭력성이 드러난 범죄이고, 불행등

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주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

번 사건은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차별받는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여중생'인가.

'여중생. 여고. 여대. 여교사. 여의사.....

잠시..이번 사건으로 인해 기억난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때였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사고난 현장에서 사망자 명단, 부상자 명단, 실종자 명단이 연 신 보도되고 있었다.

-대학생3명..... 여교사 2명 실종-

여성이 이렇게 따로 호칭되는 이유는 무얼까. 왜 '중학생'이 아닌 '여중생', '교사'가 아닌 '여교사'로 굳이 불러주는 것일까.. 이유는 보편화된, 일반화된 개념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남 교사, 남의사, 남대생, 남고, 남중생... 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익숙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합리적인 답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 하나가 행동 이니가 그 것을 재생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눈치챘다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저 편의주의적인 발상에(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려는)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끊어버리고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꽃다운

이제 여성의 외모에 맞춰 (이쁘다. 아름답다 나이가어려다. 신선하다 늙었다등등... 많잖아...~~) 적절하게 다양하게 끊임없이 꽃에 비유시키며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은 신물어나게 지겹고 열상적인 모습이다.

효선이 미선이는 중학생들이고, 중학생이면 그 시기에 한창 열심이지? 공부하며 꿈을 키워갈 나이였다. 근데 왜 꽃다운이라는 말로 묘사가 되는지 말이다.

우리 이제 '효선이 미선이'의 죽음을 규탄했으면 한다.

'꽃다운 여중생'이라 일컬으며 '꽃다운 누이'라 일컬으며 그녀들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



씨엠씨 노동자들의 현실보고...

by. 오시리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유산율이 40%를 넘어 50%에 가깝다. 믿어지나요? 실제 씨엠씨(카톨릭메디칼센터)의 노동자들인 간호사들의 유산율이 그러합니다. 작년 한해 출산을 한 간호사가 45명, 유산을 한 간호사가 38명이려면 더 실감어 가나요? 다른 노동의 현장도 아닌 병원이라는 현장에 종사하는 그들의 유산율이 그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씨엠씨의 간호사들은 임신을 하게되면 자연유산과 고의적 유산을 한다고 합니다. 임신 시에도 야간근무를 하겠다는 반강제적 각서동의로 인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힘든 야간근무를 했다는 우리의 불쌍한 자매들... 그로 인한 자연유산 앞에선 호소할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을 하게 되면 눈치도 봐야 하고, 임신이 더 힘든 야간근무를 피하고자 일부러 유산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가는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여성들의 출산기피가 왜 자꾸 늘어날까요? 씨엠씨의 간호사들이 겪은 것처럼 많은 여성들은 사회진출을 함과 동시에 출산이라는 매우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다가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고 맡길 데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부에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자는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린다?

by 오시리스



마법에만 걸리면 얼마나 좋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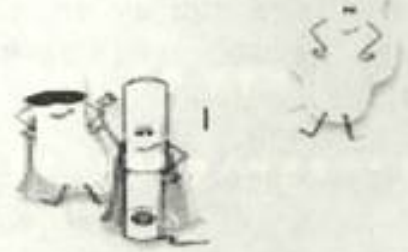
마법에 걸리면 그 마법에 대비해 생리대를 마련해야 하는 전국의 1300만 우리 자매들... 우리에게 생리대는 필수임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으로 안겨집니다. 한번 마법에 걸릴 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 수는 20~30개. 종류별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공통된 생각은 "생리대는 너무 비싸다"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만우회는 생리대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1977년 박정희 정권 말기 강압적으로 실시된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지금껏 손도 못 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활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의료용역이나 교육용역이라고 다 면세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생활수준도 달라져 기초 생활필수품의 내용과 비중도 달라졌다. 농수축산물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다.

연탄을 때는 서민층의 비율도 미미해졌다. 이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생필품목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제정되던 지난 70년대는 여성들이 전생리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일회용 생리대를 사서 쓰고 있다. 저소득층에는 야간 부담이 아닌 수 없다. 생리대를 비싸든 싸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필수품이며 값이 싸다고 해서 더 소비하지도 않는 가격탄력성이 가장 낮은 소비재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정부는 여성들의 요구에 무조건 거부반응을 보이기보다는 현재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조치가 우리 생활수준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월경페스티벌을 다녀와서....

by-빨-



처음에는 중여학생회에서 제안을 받고 아무 느낌 없이 간다고 했었다. 요즘 여성주의에 대해 아니 여성과 남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있어서이기도 했다. 근데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느낌으로 조금은 다가 온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정말 많이 오던 31일...

우비를 입고 연세대로 향했다. '과연 비가 이렇게 오는데.. 볼수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미지듯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연세대 공연장에 도착...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악천우의 영향으로 많이 지연되었나보다.. 조금 기다린후 들어가면서 주위를 보았다.(옆에는 생리대 면세에 관한 서명, 기지존 분들께서 손수 만드신 여러 장식품들, 월경에 대해 적는 게시판,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음반 판매 등...) 주의를 잠시 분후... 공연장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잠시후...공연시작!!! '넌 숨기고 다니니?... 난 아니야!!' 이런 내용의 월경을 표현한 영상으로 시작했다..

그 영상을 시작으로.. 여자분 세분이 나오셔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월경에 관한 이야기,에피소드..(항상 여자 점원이 계산곳에 가서.. 생리대를 사고, 항상 검은 봉지에 담아 준다는 이야기등..) 장애인, 종교인, 트랜스 젠더들의 월경에 관한 이야기, 트랜스 젠더와 보지 패션쇼라고 하는극, 인무가의 월경에 관한 인무, 월경에 관한 퍼포먼스, 여성에게 좋은 체조... 그리고 그 외 축하공연들... 이렇게 공연은 막을 내렸다..

참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월경에 관여, 숨기던 월경에 대해 편이 즐기고 말이며 느끼게 하는 자리..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쉬운점들이 있었다.

그안에 있던 남성들은 조금은 소외나 배제를 느낄수있었던 분위기(월경축제 자체가 남성의 소외를 낳은 것은 아니다.. 그날 분위기가 좀 그랬다는 거지..), 구성, 사회자의 발언들, 너무나도 축제의 분위기..(콘서트장 같은), 상업적인 모습들(마지막에 사회자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다고 하며 어느 상품의 광고..)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음의 그런 공연의 자리에서는 아쉬웠던 점들이 조금이나마 고려되었으면한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표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보고 느꼈으면 한다..

• 월경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월경을 하는 동안은....>>

제사지내는 곳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면, 술이 역지 않는다.

목욕을 하면 압된다.

운동을 하면 나쁘다.

매력을 잡지 말아야 한다.

수영하면 나쁘다.

동식물에게 똥이를 주면 압 좋다.

심한 생리통은 결혼하면(성관계 후) 감소한다.

'밥.꽃.양'을 아세요?

by no name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으셨나요? 혹은 중점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저와 비슷한 감정일 듯 싶네요. 어떻게 '느낌'을 표현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밥.꽃.양'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정리예고에 반대해서 파업투쟁을 벌이지만, 결국 협상을 통해 정리예고는 수용됩니다. 이에 277인이 도마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발표당시, 식당여성노동자의 수가 276인이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결국, 협상이후 정리예고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식당여성노동자전원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희망퇴직등으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을 제외한 144명의 식당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똑같은 장소에서, 절반의 인원이 하장이라는 이유로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1년미다의 재계약경쟁에 시달리며 일하게됩니다.

얼마후에 133명이 복직한데에 반하여, 노조가 운영하는 식당의 하장여성노동자들이 된 그들의 복직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목숨 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가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밥.꽃.양'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가 말하는 현실은 결코 특수한 조건과 상황이 빚어낸 오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지럽게 널려진 관계망속에서 타자화되고 배제되는, 여성들의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화면에 등장하는 한 여성노동자는 술에 취한듯이 그의 고백(?)을 나지막이 들려줍니다. 가정내 취약한 자신의 모습과 당시 현실에서의 압박받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그의 음성화된 체험들은, 2시간이 넘는 이 영상보고서가 보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것인가를 짐작케합니다. 익숙해짐에 곁들여

전것인지, 혹은 바로 들여다보기가 두려워서인지 둘둘 감싸지고 치장되어 있었던 현실은 장면의 전환마다 이미 발가벗겨진듯한 소름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스크린을 앞에두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던 알려져있던 사실이 아닌, 영케버런 실타래같아서 그 실마리를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현장의 냄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분명한 것은 알고 있어도 또 시작될 것어런 겁니다.

정리예고를 막기위한 정리예고의 대상자가 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정규직화되어버리는, 노조·기업·국가에 의해 성차별당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속으로 편입되어버리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말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진행되어 아무일 아니라는 듯 무감각과 무신경으로 풀어내버릴지도 모를 우리의 현실말입니다.

'밥.꽃.양'의 상영이 끝난 후, '감독과의 대화'에서 임안에감독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밥.꽃.양'은 보이지 않는 희망, 크나큰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만 해야 하는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밥.꽃.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세상을 적시는 사랑?

by 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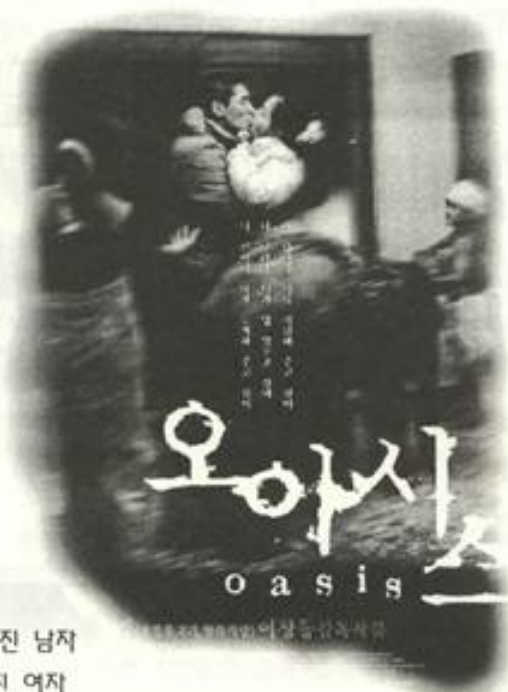
2002년 9월 5일

고등학교 다닐때는 한달에 한번씩은 꼭 극장에 가곤했는데 대학생일
하면서 심계월애 한번정도로 극장을 찾는 횟수가 마니 줄어들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영화가 개봉하면 꼭 극장에 가서 보려고 노력한다.
박하사탕이후로 설경구를 너무 좋아하게 된 나는 그의 영화를 거의 다 봤다. 어찌
나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새로운 영화가 나올때마다 그의 연기에 반하
고~또 반하고...임튼 설경구는 대단한 배우다.
그의 새 영화가 개봉되고 난 무척이나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
또 한번 그의 연기에 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아시스>홍보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세상을 적시는 사랑.

[세상에서 가장 착한 손을 가진 남자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을 가진 여자
우리,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두근두근 달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심호흡하면 크게 아고!

....running time 100분 ...

이 시간동안 내 머릿속은 혼란스럽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소리의 집에 경구가 침입하는 그 장면부터 나의 혼란은 시작됐다. 의사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소리에게 다가가는 경구의 모습이 무척이나 순수하게 보여
지다가 갑작스레 경구의 그 착한손이 소리의 가슴을 거칠게 물어뜯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낯선자의 침입에 놀란 소리의 두려움에 가득찬 비명소리가 내 귀엔 처
절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여차저차 아다가 사랑에 빠진다. 그런 그 둘의 모습은 참...행복해
보였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난 경구의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착한 손으로
소리를 움아쥐고 곁담을 마려했고, 소리를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에 눈이 멀어 지
니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거친 욕을 해대며 전화기를 빼앗았다. 눈물을 흘리며 비
명소리조차 내지를 수 없는 그녀들을 그의 착한 손으로 제압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서 경구와 소리의 소름끼치는 연기에 또한번 열광했지
만...어찌 영화는 좀...찝찝했다.

강간당한 소리가 경구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어처구니가 없어 비현실 적인 설정도
찝찝했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도 무척이나 괴상했
다.

그 관계의 시작이나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사랑이면 모든것이 용서되고 어
름다워질수 있는가?

‘강간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그들은 사랑하게 됐고,
결국 그녀가 진정으로 원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거나~
다 좋은게 좋은게지~ 나쁜건 그런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야~
이영화는 그들을 포집는 영화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건가?

임튼 정리하기 무척 힘든 영화다.

근데 과연...저 사랑으로 세상을 적실 수 있을까?

페미니즘 페스티벌 기획단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하별로.. 괴리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혼자라서... 어색할까봐 ...라는 걱정 안하셔도 되
요...)
지금의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경험들은
서로 교집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주는 사람이 아니기 위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이가 아니기 위해
가부장제 뿌리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 편견, 오해, 폭력을
내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여남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기 위해...

얼굴을 맞대고 서먹서먹한 인사를 건네고
서로의 다른 색깔들의 경험의 약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는 순간
여성주의로 구성되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페미니즘이 과격한 여성주의 아니냐고?
여성우월을 어떻게 하는게 아니냐고?
당근 아니지...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일 뿐이야...
여남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첫모임 : 9월 10일 늦은 4시
장소 : 총여학생회실

페미니즘 문화제콜 함께 만들어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볼 수 있
셨으면 좋겠네요... ^^
첫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도 함께 하고 싶으시면 언
제든지 전화주세요... ~~~~~
(820-0867,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11대 에갈리아 총여학생회

문장리듬을 생각하며 읽어야

가다

오아 역시 복잡한 내 머리속에서
정리된 생각을 찾아내기란
꽤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거야...
b4 감이

중아중아
.....b4 미나리

여성이 말을 한다는 거..... b4 짜짜

글을 쓰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어 더 이득에
무관심하지 않더 나를 발견할 수 있어고.
그것은 기쁨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하지만
어찌보면 절대 사소해질 수 없는 일들을
같이 고민해 보았으며 중계합니다.
b4 오시리스

아싸..... b4 보라